

김종식 시장, 목포역사 현대화·국도 1호선 연장 정부 건의

(목포시)

**목포역 이용객 매년 지속 증가
현재 인프라로 변화 대응 역부족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필수적”**

전남 목포시가 노후화되고 비좁은 목포역사의 현대화와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유희부지 활용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 김종식 목포시장은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하고,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과 국도1호선 기점 연장을 정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맛의 도시 브랜드화 등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 국제행사 유치로 앞으로도 관광객 증가요인이 매우 큰 상황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3일 국토부를 방문해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를 건의했다.

호남선의 출발역인 목포역 이용객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목포역으로는 변화에 대응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목포역은 지난 1979년 7월 신축·완공한데 이어 2004년 4월 KTX 운행으로 증축됐다. 노후화되고 비좁아 이용객 불편을 야기하고, KTX 수요에 비해 운행횟수가 적어 열차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다. 게다가 목포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인천·수원, 부산발 KTX 등의 철도 건설사업도 준공이 예정돼 추가 수요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목포역의 시설 배치는 고속열차 선로 증설 등을 통한 KTX 증편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목포시는 이같은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기능개선을 통해 KTX를 확충하고, 역사 현대화와 유희부지를 활용해 공원, 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김 시장은 이런 사정과 구상을 국토교통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사업에 반영·추진을 건의했다.

또 지난 2013년 지정된 목포시 관내 국도1호선의 기점을 연장하고, 지정국도로 지정해 국가에서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은 관광객 수용 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목포역사 신축 등 그동안 숙원이었던 지역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북도와 의성군은 안계평야에 밀과 유채를 시범 파종했다.

경북도·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관광화

경북도와 의성군이 청년 유입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관광자원화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군은 최근 추수가 끝난 안계평야에 우리 밀과 유채를 시범 파종했다.

안계평야에 밀과 유채꽃 경관단지를 조성해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골목정원, 팻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의성(경북)=문봉현 기자

이철우 “경북가치 세계 전파”

(경북지사)

**19일 세계인문학포럼 준비 만전
코로나 사태로 온·오프라인 병행**

경북도가 경북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인문학포럼을 경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기로 하고 빈틈 없는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9~2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리는 이 행사 참가자를 세계인문학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이 행사는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세계인의 인문학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올해는 ‘어울림의 인문학 - 공존과 상생을 향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경북도, 경주시,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2011년 출범해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는 세계인문학포럼이 경북에서 열리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교육부 공모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포럼에는 세계 25개국 45명의 해외 석학들과 국내 110여명의 인문학자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돼 인문학에 대한 열정적인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에서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다”며 “경북의 인문 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내일부터 개막

국내 유일의 수산전문 박람회인 ‘2020년 제18회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BISFE 2020)’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10개국 278개사가 참여해 해외 바이어 온라인화상 수출상담회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비대면 특별 행사를 비롯해 전시행사, 온·오프라인 학술행사, 코로나19 의료진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부대 행사 등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장면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부산시 “국내여행 예약시 최대 30% 할인”

관광 콘텐츠 담은 상품 44개 선정

부산시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조기예약 30% 할인 관광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여행하며 지친 심신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 여행상품은 투어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으며 ▲부산갈매기 1박 2일 투어 ▲다이내믹 부산 1박 2일 해양레저 체험 투어 ▲엄지척! 아



주 특별한 하룻밤, 캠핑카스테이 ▲비행기 타고 가요~ 부산명소 1박 2일 ▲부산명품태교여행 등 부산의 매력적인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담은 여행상품 44개를 선정해서 운영한다.

관광객들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을 통해 여행사의 부산 여행상품을 조기 예약 또는 선결제할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산=허의원 기자

무안군

취약계층 230명 일자리 제공

전남 무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의 생계지원과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2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정부에 지역일자리사업을 신청해 국비 8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 중 최대 인원과 사업비이며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 25일 까지이며, 참여자들은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 73개 장소에서 발열체크,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안동시, 안동호서 이색 음악회 개최

6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쇠제비갈매기의 꿈’을 응원하는 이색적인 음악회가 오는 6일 경북 안동시 안동호 인공섬에서 열린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안동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권지사가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 보호 및 환경보호 차원의 시민 연대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동 출신 스트라드 뮤지 이원필 대표가 기획한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움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펼쳐진다.

첼로에 이숙정 한양대 교수, 바이올린에 정준수 경희대 명예교수, 트럼펫에 안희찬 리움 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



쇠제비갈매기

독, 이현정 피아니스트가 함께 한다.

생상의 ‘동물 사육제’ 중 ‘백조’,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제3악장 ‘알레그로’, 트럼펫을 위한 무제타의 왈츠,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3번 제1악장 ‘알레그로’, 아리랑 등이 선보인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주 실황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부산시, 10억 규모 주거 재난지원금 지급

영구임대아파트 1만 세대 관리비 지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1만여 세대 입주주민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주거 긴급재난지원금’

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은 부산 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11개 지구 1만725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당 10만원씩, 3개월간(2020년 11월~2021년 1월)의 아파트관리비 지원 형태로 지급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운동 기구 꾸러미.

화순군

청소년 비대면 활동 지원

화순군청소년문화의집은 ‘슬기로운 청소년 집콕 생활! 굿바이 홈트’ 비대면 체험 활동을 추진했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상생활 등에 제약을 받으면서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체력이 저하된 청소년이 집에서 손쉽게 운동하도록 비대면 체험 활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군은 홈트 체험 꾸러미를 제공, 비대면 활동을 지원했다.

제공한 홈트 체험 꾸러미에는 안전과 중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무소음 운동기구로 짐볼, 요가매트, 밴드 3종으로 구성됐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